

□ 海外석유산업動向 □

転換期を 맞은 美精油業界

석유수요의 격감등으로 세계적으로 精油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美国에서는 현재 全精油工場의 10% 이상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정유업계는 그 대策에 부심하고 있다.

美国 精油工場의 가동율은 현재 70%이하로 떨어졌고, 지난 여름철 드라이브시즌에도 휘발유在庫가 늘어나는異變을 보였다.

美国 精油社들은 휘발유価格의 인상과 비싼 輸入原油 대신 在庫의 방출등의 대응책을 세우고 있으나,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中小정유회사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中小정유회사들을 中心으로 정유공장 폐쇄나 合併등의 업계재편성이 또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美石油協会(API)가 發表한 9月 4일 현재의 週間稼動率은 69.7%로 前年同期의 75%를 크게 下挫했다. 휘발유在庫는 2 억 4천 1백50만 배럴로 前週에 비하여 4백40만 배럴이나 增加했다. 8月末부터 9月初에 걸쳐서는 드라이브 시즌의 絶頂에 해당하는 만큼, 이 在庫의 增加는 전혀 異例의 일이다.

이 協会에 의하면, 휘발유의 需要는 今年 1~7月에 前年同期보다

6.4%나 下挫하고 있어서, 需要는 전혀 回復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需要減退로 供給過剩에 빠진 美石油業界는 지난 봄부터 일제히 旧式 設備의 閉鎖에着手했다. 뉴스위크誌에 의하면, 今年初에 操業하고 있던 3백 1個 精油工場中 이미 10%以上이 永久閉鎖와 操業停止에 들어가고 있다.

美國의 精油工場은 최근 增加한 硫黃分이 많은 原油處理用으로 設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이프나 탱크의 腐蝕이 심한 点이 큰 問題로 되어 있으며, 閉鎖는 우선 이러한 旧式設備를 中心으로 실시되고 있다. 価格面에서는 각社가 리베이트에 의해 消費를 增加하는 戰略으로 나갔기 때문에 8月의 휘발유의 平均価格은 1갤런(3.785ℓ)當 1달러34센트로 3月에 比해 約 4센트나 下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리베이트에 의해서도 消費는 전혀 回復되지 않고, 精製코스트와 販売cost의 上昇으로 精油工場의 대다수는 赤字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石油各社는 価格引上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年末까지는 1갤런當 6센트 정도는 上昇하리라고 予想하는 分析者

들이 增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를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価格上昇의 조짐은 예컨대 선社가 코네티컷과 테네시州의 일부에서 1갤런當 0.5~1센트의 引上을 發表하거나 텍사코가 都壳価格을 8月末에 1갤런當 1센트 引上한데다, 크레디트카드에 3%의 使用料를 받는動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石油各社의 또 한가지 대策은 輸入原油를 줄이는 대신에 在庫의 放出을 図謀하는 방법이다. API에 의하면 9月 4日 現在의 週間原油輸入量은 하루 3백60만 배럴로 前週의 4백만 배럴, 去年同期의 4백90만 배럴을大幅으로 下挫하고 있다.

한편, 原油在庫는 3억 7천 1백70만 배럴로 前週보다 4백90만 배럴 減少했다. 「이는 정유회사들이 在庫를 사용하고 國際市場에서 原油를 사지 않고 있는 証拠」로 풀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애시랜드 오일은 최근, 알제리, 오만, 카메룬의 3個國으로부터의 購入을 중지했다.

美石油業界에는 精製設備의 供給過剩은 当分間 계속될 것이며, 나이지리아가 原油価格을 1배럴當 4달러 引下해도 精製工場은 黑字로 돌아설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